

상하이항 봉쇄 큰황

글로벌항만물류연구회

-김지희 오원철 정송연-



사건 발생 배경

상하이항 봉쇄배경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한 명의 지역사회 감염자도 용납하지 않는 '제로코로나' 정책 시행,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코로나19 확산을 원천 봉쇄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함으로써 3연임을 노림. 오미크론 바이러스 발생 이후 확진자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하이 봉쇄.

중국의 반응은?

중국 상하이 봉쇄가 장기화되면서 세계 최대 컨테이너항인 상하이항의 육/해상 물류 차질도 커지고 있다. 전 세계 공급망 위기에 더 큰 압박이 더해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하이항 운영사는 “현재 항구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며 컨테이너선 적체설을 부인했다.

상하이항 소개



컨테이너 물동량 기준 중국 1위이자 세계 1위 항구



현재 상황

중국 내 상황

- 상하이 주민은 식료품 부족을 이유로 아파트 베란다에서 냄비와 밥솥을 두드리는 이른바 '냄비 시위'를 벌임.
- SNS에는 정부가 썩은 채소와 상한 돼지고기를 보급한다는 폭로 발생.
- 위급한 질병이 아니면 치료를 위한 외출도 불가능해 작은 질병에도 사망하는 사례가 보고 됨.

중국 내 상황



중국의 4월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 대비 3.9%로 2020년 6월 이후
22개월 만에 최저치로 하락.
중국의 1분기 성장률은 4.8%로 올해 목표치인 5.5%에 미치지 못함.

현재 상황



국제적 영향

-현대자동차는 상하이에 공장을 둔 부품사에서 부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지난달 18~21일 캐스퍼 차량 생산을 중단, LG전자는 상하이 항구가 막혀 노트북 '그램' 신제품 사전 예약자들에 대한 배송 한 달간 지연.

-아이폰 제조사인 대만 페가트론은 지난달 상하이와 인근 쿤산 공장 가동을 중단. 테슬라 상하이 공장은 가동이 중단돼 현재까지 5만대 생산 차질. 상하이항 수출입을 담당 트럭 90% 멈춰 물류난.

시사점



코로나19로 인한 상하이항 봉쇄는 전 세계 공급망과 물류 운영에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우회 공급/생산이 최선이지만 최악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의 기업들의 대응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DSU

동서대학교

글로벌항만물류연구회